

유럽의 광우병 파동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지난 96년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병되어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광우병 공포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로 비난전을 벌이며 분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EU집행위에서는 작년 12월 모든 가축에게 육골분과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30개월 이상된 소는 광우병 검사를 거친 후에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와 양의 내장류는 전부 유통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등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며, 또한 사슴과 양에 대한 광우병 문제도 일부 국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MBM(Meat & bone meal)에 대한 사용 금지 이후 영국에서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MBM의 처리문제도 곤혹을 치루고 있으며 대체 사료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에서도 대두, 해바라기씨, 면실, 야생콩 등이 있으나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되는 대두 등이 유전자 형질변경을 거치는 것이 많아 육류를 소비하는 유럽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양국만이 MBM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EU 회원국 전체가 MBM을 근절기로 한다면 엄청난 새로운 국면에 돌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영국내 맥도날드사는 최근 유전자변형 사료로서 사육된 동물의 육류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햄버거킹사도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럽의 현상에 대하여 국내 농림부에서는 지난 96년부터 국제수의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후 매년 일정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이정호 분사장
농협중앙회 사료분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또한 광우병 발생국가 소 및 쇠고기는 물론 부산물과 육골분, 사료 등을 전면 수입금지하였으며 국내 배합사료중 축우사료에는 육골분 등을 사용치 말도록 조치하였으나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류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돈사료의 가격상승에는 약 25% 내외이나 환율상승 및 주요 곡물과 기타 감피류의 동반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등에서 MBM의 가축사료 금지 조치 이후 국내에서 대두박, 채종박, 면실박등 식물성 박류사료 가격이 평균적으로 14% 정도 (2000년 년초 대비 12월 가격 비교시) 인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박류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돈사료의 가격상승에는 약 25% 내외이나 환율상승 및 주요 곡물과 기타 감피류의 동반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국내에서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생존을 위하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양돈사양가, 관련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내 양돈산업의 현안을 보면 (1)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 (2)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3) 소비자들의 권리강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증대) (4) 유럽에서의 동물복지 강화 (5) 구제역, 콜레라 등 질병 문제 (6) 생산성 향상보다는 돈가 등락에 의한 경영 (7) 대일 수출중단 (8)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 등이며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상기에 나열된 현안에 대하여만 기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에서 선진 농업국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열세인 국내

양돈가가 보호되기 위하여는 관세율 등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생산자단체 등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환경오염 문제이다. 말레이시아 세란고르주에서는 하천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2005년부터 양돈업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며 물론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 관련사항이 강화되어 친환경 축산으로 재편되었지만 동남아에도 이런 조치가 취하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하천의 부영양화 원인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돈·분뇨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에는 지구상에서 물 부족 현상이 예견되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는 약 300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친환경 측면에서의 양돈업의 영위는 생산비의 추가, 축산물 생산성의 감소가 예견되더라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 증대이다. 유럽산 돈육의 다이옥신 파동, 고름우유 파동 등이 그 예로 안전하지 못한 축산물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국가간의 분쟁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ISO, GMP, HACCP 인증 등

〈표1〉 IMF 전후 생산성 비교

구 분	IMF이전(A)	IMF이후(B)	B/A(%)	비고
모든 연간회전율(회/년)	2.14	2.20	102.8	번식돈
산자수(두/복/년)	22.47	22.44	99.9	"
이유두수(두/복/년)	19.9	19.8	99.0	"
이유일령(일)	23.9	22.3	93.3	"
자돈폐사율(%)	11.4	11.8	103.5	"
출하일령(일)	176.0	176.8	100.5	비육돈
출하시체중(kg)	107.3	107.9	100.6	"
일당증체량	609.7	610.3	100.0	"

〈표2〉 모돈회전율 및 이유두수 증대에 따른 비용절감

이유두수	모돈회전율(회/두/년)			
	2.1	2.2	2.3	2.4
9.0	1,770	1,685	1,602	1,517
9.5	1,673	1,591	1,512	1,434
10.0	1,574	1,499	1,423	1,349
10.5	1,474	1,405	1,335	1,264

제도적인 장치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유통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며 물론 양돈 사양가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및 질병문제로서 양계, 양돈업을 위주로 평당 사육두수, 도축 등에서 동물복지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와의 무역시 고율의 관세부가 등이 새로운 WTO 협상의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 협회 등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병예방은 민간차원의 기구가 마련되고 지난해의 구제역 여파로 정부, 단체, 사양가 등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상시 감시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월 15일을 방역(소독)의 날로 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많은 사양가들에게 그 중요성을 많이 부각시켰다.

다음은 양돈 사양가의 생산성 문제이다. 일부 사양가들이 돈가의 등락에 의한 경영을 하여왔으나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표1〉은 IMF 전후의 모돈 및 비육돈의 생산성을 비교 및 모돈의 생산성 향상이 경영에 얼마나 많은 보탬을 주는가하는 자료이다.(자료출처는 농촌진흥청 조사자료임)

그리고 대일돈육 수출 재개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기타 품질보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분별한 돼지고기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전체 돈육에 대한

소비 불신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협 사료분사에서는 전국에 산재된 사료공장의 ISO 품질 인증 시스템 도입에 이어 HACCP 인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일 돈육 수출품질 향상을 위한 백색 경지방 돈육 생산 연구, 동물성 유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도입, 고 품질의 비타민 사용, 항생제 첨가 및 무첨가 배합라인 분리 운용 등을 통하여 국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양돈사양가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양돈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하여는 양돈 사양가, 학계, 업계, 정부 등이 지혜를 모아 『자신』 보다는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이 먼저라는 마인드로 매사를 처리한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의 양돈산업이 축산업의 근간으로서 성장을 거듭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양돈**